

트위터 넘어서나... 인기 상한가 '스레드' 아시나요?

메타 출시 5일만에 1억명 돌파 텍스트 중심 500자까지 작성 가능 게시물 수정 어려워 아쉬움

“스레드 하세요?” 주변 어디 가도 스레드, 스레드... 그 인기가 심상치 않다. 출시 다섯만에 다운로드 1억회를 넘겼는데, 스레드가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 난리일까? 나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 스레드,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

스레드(Threads)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가 지난 5일 새롭게 선보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다. 출시 5일만에 세계 가입자 1억명 돌파, 역대 최단 기록인 챗 GPT(2개월)를 가볍게 누르고 닷새만에 트위터 가입자(약 2억 3000만명)의 절반을 따라잡았다.

스레드에 가입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스레드의 빠른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하면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30초.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팔로잉 목록까지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이 사진·영상 위주라면 스레드는 텍

스트 중심이다. 한 게시물당 최대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고 사진은 최대 10장, 영상은 최대 5분까지 올릴 수 있다. 트위터의 글자 수 제한이 200자인데 비하면 꽤 많은 분량이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인스타그램이 '개방된 공간'이라면 스레드는 '나만의 방' 같은 느낌이다. 꾸미진 모습을 위주로 기록하는 인스타그램과 달리 스레드에는 보다 편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길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를 보여주기 바쁘다면, 스레드에서는 '내가 어떻게나 이상해요'를 알다뉘(?) 자랑한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창기라 그런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무말'이나 남기는 분위기다.

스레드를 가장 잘 즐기는 사람은 꼽으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스레드에 "경기도 오늘 비온다. 다들 우산 챙기고"라고 남기거나, "오새 뭐하고 살아?"라는 질문에 "공무원이지 뭐"라고 답하는 등 '반말 컨셉'으로 큰 화제가 됐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다. 가장 불편한 점은 게시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용을 수정하려면 아예 글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SNS가 '해시태그', 'DM(Direct Message, 다이

렉트 메시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지만 스레드에는 이 같은 기능이 없다. 김예림(여·23)씨는 "내 생각을 편하게 남길 수 있고, 팔로워를 늘리는 재미로 시작했다는데 정작 사람들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딱 하루 재밌게 하고 나니 엽을 안 쓰게 되더라"고 말했다.

실제 스레드는 이용 감소를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서타워(SensorTower)에 따르면 지난 11일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8일 대비 20% 감소했다. 이 기간 이용자들이 머문 평균 시간도 20분에서 10분으로

50% 줄어들었다.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스레드'만의 특징과 방향성을 결정할 때다. 과연 스레드가 트위터를 능가할 메타의 회심작이 될지, 클립하우스처럼 한 달 천하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스레드
텍스트를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최대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다.



쏟아 IT 정보

'U+안심로밍 전환경 이벤트'

LG유플러스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네임택, 미니가방 등 업사이클링(재활용) 굿즈를 증정하는 'U+안심로밍 전환경 이벤트'를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방문한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캐리어 등에 달 수 있는 네임택이 제공되며, 'U+안심로밍 제로 프리미엄'에 가입하고 전환경 여행 실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한 고객은 미니가방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두 굿즈 모두 매장에서 버려지는 X배너와 차양막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17일부터 이벤트 신청이 시작되며 굿즈는 24일부터 인천공항 3층 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KT '패밀리박스' 가입대상 확대

KT는 가족간 데이터·멤버십 공유 앱 'KT 패밀리박스' 가입 대상을 늘어나는 1인 가구 트렌드에 맞춰 1인 결합 가족으로 확대하고 KT 결합 미가입 가족도 초대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KT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모바일 가입자 2회선 이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수에 따른 '보너스 데이터'와 '보너스 회원 포인트' 등 혜택은 1인 결합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리워드 데이터' 혜택을 새롭게 추가해 출석 체크 등 임무 수행 시 가독당 월 최대 2천MB까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와이파이와 웹툰 이용권에 한정했던 쿠폰 박스 혜택을 배달용 요기요 할인, 소피텔 폐매종 주말 뷔페 15% 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출시 10년을 맞은 KT 패밀리박스는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었고 월 최대 접속자 수는 200만명 규모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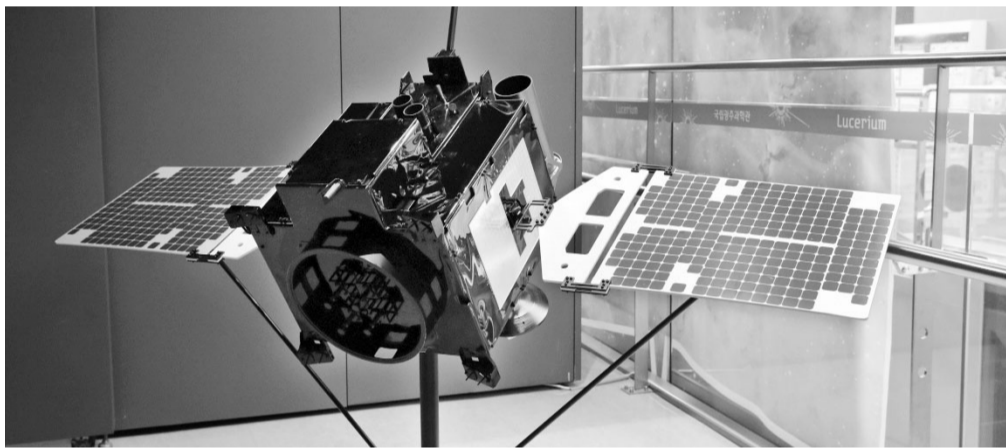
KT, 010 자동연결서비스 종료

이동 통신사의 2G 가입자 전환 프로그램이 최근 끝나면서 '010 번호 연결 서비스'도 같이 종료된다. 이로써 2G 및 관련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KT는 오는 31일부터 010 번호 연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G 시대 휴대전화 식별 번호인 011, 016, 017, 018, 019 등을 사용하던 이용자가 010 번호로 이동하면 이동사가 기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나 문자를 새 번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이동 3사가 모두 송신 장비의 노후화를 이유로 이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010 번호 연결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여름방학,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놀자"



국립광주과학관에 전시된 1/3 크기의 다누리호 모형.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1/3 축소모형 전시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축소모형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한다.

대한민국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수증 받은 다누리호는 실제 크기의 1/3 축소 모형으로 실제 다누리호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다.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위상을 알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모형을 과학관에 전시하게 되어 뜻깊

다"며 "앞으로 우주과학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 2관 2존 '미래를 향한 도전'관에 전시 중인 다누리호 모형은 '인공위성이 어떻게 계속 일정 구간을 돌까?', '우주공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등 우주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품과 함께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



국립광주과학관의 미디어 랩에서 학생들이 골격의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맞춤형 반려동물 케어봇' 등 테마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테마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3 여름방학 특별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과학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창의력 팡팡! 과학교실'을 포함해, 올해 신규 개발된 '맞춤형 반려동물 케어봇', '어린이 닥터탐정 오! 감각' 등 교육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올해 여름방학 특별 정기교육은 8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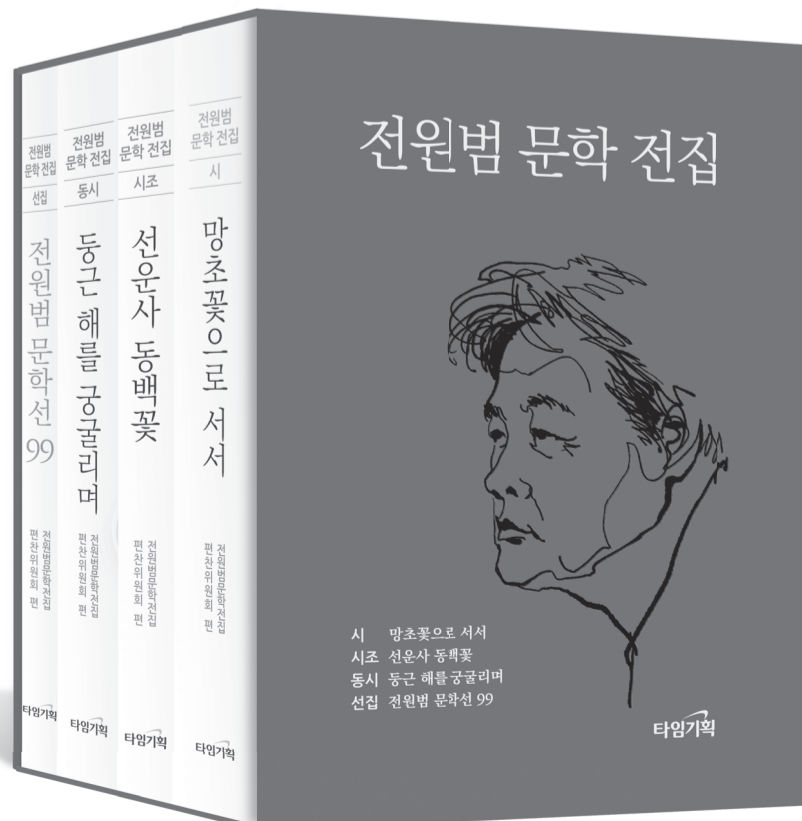
운영되며, 이달 14일부터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올해는 더 다양하고 알찬 여름방학 특별교육을 준비한 만큼 많은 교육생들이 과학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과 함께 의미있는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 참고.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